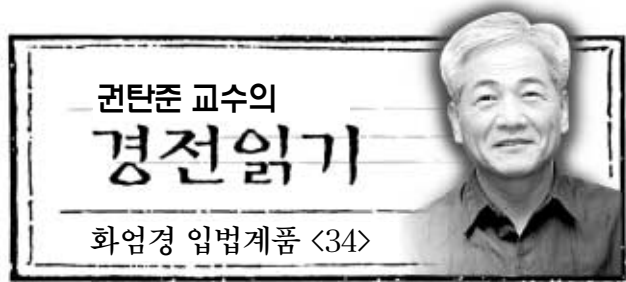


명지거사로부터 '뜻대로 복덕을 내는 광해탈문(隨意福德藏解脫門)'의 법문을 듣고 선재동자는 더욱 복덕의 바다에 헤엄치고 복덕의 광을 열어 복덕의 세력을 늘리려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남쪽의 사자궁성(師子宮城)으로 가서 법보계 장자를 찾아 보았다.

시장 가운데에 있는 그를 발견하고 엎드려 절하며 보살도를 설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장자는 선재동자를 자기가 거처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의 집을 가리키며 '선남자여, 내 집을 보라'고 말하였다. 그 집을 보니 청정하고 광명이 찬란하며 진금(眞金)으로 되었는데, 온갖 보배로 장엄되어 있었다. 그 집은 열 층에 여덟 문이 있었다.

선재동자는 그 집에 들어가 차례로 살펴 보았다. 맨 아래층에서는 음식을 보시하고, 2층에서는 보배 옷을 보시하고, 3층에서는 모든 보배 장식품을 보시하고, 4층에서는 여러 시종들은 사람과 보물을 보시하였다. 5층에서는 제5지 보살이 법을 연설하며 세간을 이악게 하여 삼매의 행과 지혜의 광명등을 성취하였다. 6층에서는 모든 보살이 매우 깊은 지혜를 이루어 법성(法性)을 통달해 무량한 반야바라밀다문을 분별했다. 7층에서는 보살들이 방편 지혜로써 분별 관찰하며 온갖 열매인에서 벗어났으며, 모든 부처님의 정법을 바르게 이해하였다. 8층에서는 한량없는 보살들이 모였는데, 모두 신통을 얻어서 작음이 저재했다. 9층에는 일생 보처 보살들이 모였다. 10층에는 모든 여래가 중탄해 있는데, 큰 서원과 신통을 이루어 대중을 청정하게 하며 바른 법문을 굴리어 중생을 조복시켰다. 장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광경을 모두 분명히 보게 하였다.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34>

법보계장자의 법문

10층 8문은 보살 나아갈 길 상징

흔들림없는 원력으로 중생교화

이와 같이 선재동자가 보살도를 설해주기를 청하였는데, 법보계장자는 아무런 설법을 하지 않고 그를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집을 보여줌으로써 보살이 닦아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그 집은 온갖 보배로 이루어진 10층 8문의 집이었는데, 그 집은 여러 가지 수행 공덕의 과보로써 이루어졌다.

집이 청정한 광명이 나는 진금(眞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보살행의 본질이 청정무구하기 때문에 그 과보로 성취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집의 여러 가지 장엄도 각각 단계적으로 10바라밀을 닦아서 갖추게 된 공덕을 상징하는 것이다. 10층의 집도 또한 10바라밀을 아래로부터 위로 행하도록 배열하여 차례대로 닦아 나아

감을 나타낸다. 집이 8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팔정도(八正道) 또는 사섭법·사무량심의 수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하여 법보계장자는 보살도라는 것은 팔정도 또는 사섭법·사무량심으로써 10바라밀을 단계적으로 닦아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집의 각 층에서 보는 광경이 다른 것은 보살도가 빈궁한 사람에게 의지주를 갖추어 주는 것에서부터 정신세계와 인격 활동을 점점 향상시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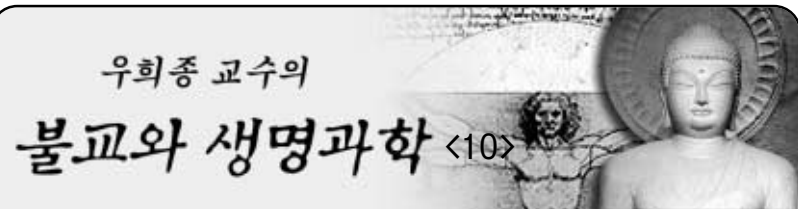
법보계장자가 머무르고 있는 성의 명칭이 사자궁인 것은 보살도가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거나 굴하지 않고 용맹하게 행하여 집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의 명호가 법보계인 것은 장자가 행하는 모든 수행이

어디에도 구애됨이 없이 자유자재한 선정(禪定)의 경지에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선정이 10바라밀과 8정도 또는 사섭법·사무량심 등의 수행을 총괄하여 법(法)의 정상(頂上)이 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법보계장자는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림이 없는 선정의 경지에서 살아가므로 시장 속에 몸을 담고 중생을 교화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법보계장자의 집을 보고 나서 선재동자는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청정한 대중이 모였으며 어떤 선근을 심어서 이러한 과보를 얻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서 장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선남자여, 과거 티끌 수 겹 전에 '무변 광명법계보장엄왕 여래'가 계셨는데, 그 부처님이 성에 들어오실 적에 내가 음악을 연주하고 한 개의 향을 사투어 공양하였다. 그 공덕으로 세 곳에 회향하여 모든 빈궁과 어려움을 영원히 여고, 부처님과 선지식을 항상 보으며, 바른 법을 들었으므로 이 과보를 얻었다."

여기에서 법보계장자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선재동자가 보고 있는 10층 8문의 훌륭한 집은 과거세에 여래를 공양한 선근을 세 곳에 회향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결국 모든 빈궁과 어려움을 영원히 없게 하고, 부처님과 선지식을 항상 영접하며, 정법을 항상 들기를 원함으로써 10바라밀을 만족하여 장자가 살고 있는 10층 8문의 장엄스러운 집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수행의 바탕이 되는 선정의 마음이 구체적으로는 세 곳에 회향하려는 흔들림 없는 원심(願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삼삼등이

요즘 삼삼등이에 대한 이야기가 일회일비(一喜一悲)하며 뉴스를 타고 있다. 일란성 쌍생아로 태어나는 과정 중에 완전한 분리가 되지 않아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형태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서도 발견된다. 생물은 수확이나 물리적 반응과 같이 명확하게 정오(正誤)나 흑백으로 나뉘지 않는다. 생물에서 최종 결과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치밀한 반응이 실수 없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중간에 잘못된 확률이 비교적 높다. 또한 몸 안의 항체(抗體) 형성 과정에서 관찰되듯이 그 과정이 오히려 정확하지 않고 유동성(flexibility)이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등이의 경우 그들은 스스로 각각의 독립된 개체이기를 원했다. 또 과거 영국의 경우에는 한쪽을 살리기 위한 분리 수술을 거부하고 이미 숙진 다른 한쪽을 따라 남은 한쪽이 숨을 거둔 예도 있다. 물론 이란의 삼쌍생아의 경우 수술 중 숨을 거두었지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 삼쌍등이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혹은 수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해야 하는지 등의 논란은 그치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모양새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당당하게 삶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주인 됨을 의미한다. 이란의 삼쌍등이의 경우에

완전분리 안된 일란성 쌍생아 추정

과학,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수단이어야

이렇듯 생물 반응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여유를 지닌 유동성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생물체의 다양성을 이루는데 기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다양한 형태를 형성해 수많은 외래 침입자에 대하여 특이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기에 우리 주위에는 많은 분별이 일반적이지 못한 모양으로 태어나게 되는 경우가 보이고, 삼쌍생아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특히 이는 생명의 발현이란 개체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임에 반해 그러한 개체성이 완전하지 못한 채 태어났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끌게 된다.

과거로부터 이들을 한사람으로 불렀지만, 아니면 둘로 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이번 이란 삼쌍

서처럼 외형적인 모습이 어떠한 생물을 눈앞에 두고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들의 모습에 경건함마저 느끼게 된다.

부처님께서도 무릇 항상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것에 집착 말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기를 말씀하신다. 이번의 이란 삼쌍둥이아랑도 그들이 받은 형상을 통해 스스로 주인 됨을 금성에 공부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의학이 비록 실패는 하였지만 그들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다시 한번 모든 상황의 주인은 사람이며, 과학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석학교실



모든 중생이 이미 다 부처님이라는 것이 선종의 대전제라는 이야기를 했다. 중생과 부처는 원래 반대말인데 어찌하여 중생과 부처가 같다는 걸까? 중생이 곧 부처요 윤회가 곧 열반이라는 이야기는 대승불교에서 오래 전부터 해왔다. 모든 것의 본래 정체는 다 텅 비었다고 하는 공도리(空道理)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불이(不二) 법문에서는 모든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실상은 다 같다고 말한다. 더 온전하게 말하자면, 불일불이(不二) 또는 불일불이(不二不異), 즉 하나(같지)도 아니요 둘(다르지도)도 아니라고 한다. 같지 않다는 쪽은 일단 너무나 당연하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같지 않다는 쪽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니, 불일(不二) 쪽은 언급조차 별로 하지 않는다. '불일불이법문'이라 하지 않고 '불이법문'과 일컫는 것도 아마도 그래서가 아닐까 싶다.



선의 세계 ⑦

적지인심-6

인도 말을 번역한 것인데, '다무'라는 말은 대개 계(界)라고 번역되곤 했으나, '붓다다무'는 불계(佛界)라고 번역할 만도 한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불성이라고 번역되었다. 복잡한 사정과 뜻이 있겠지만, 다 잊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풀어보자. 교

성이란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는 부처의 성품, 부처로서의 성질이 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지는 않겠는가? 중생과 부처라는 말의 용법을 보자면 부처가 아닌 못 생

부처와 중생이 '하나' 인 도리는?

리 개념 하나 하나의 복잡한 사정을 살살 파헤치는 데 전념하는 전문학자 여러 분께서는 이렇게 단순화시켜 이야기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아무튼, 불성이라고 해놓고 보니 부처의 성품이라는 뜻이 되었고 우리도 이해할 만한 개념이 되었다. 그러니까 <열반경>에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

性)이라 한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는 부처의 성품, 부처로서의 성질이 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지는 않겠는가? 중생과 부처라는 말의 용법을 보자면 부처가 아닌 못 생

명을 중생이라 하고 중생 중에서 진리를 깨쳐 해탈한 이를 부처라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함은 곧 누구나 부처가 될 소양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순조롭다.

이른바 여래장(如來藏)이라는 개념도 이와 관련이 있다. 중생에게는 여래, 즉 부

처로서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가려지고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장(藏)이라는 말이 감추어져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무엇이 그것을 가리고 있는가? 무명(無明), 즉 중생의 어리석음이 자신의 불성을 가려서 그것이 드러나고 발휘되지 못하게 한다. 그 대신에 이데를 중생상만 발취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좀 달리 말하자면 모든 중생이 다 부처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어리석음 때문에 부처로서 살지 못하고 중생으로 살고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나 어리석음만 뺀다면 모든 중생이 이미 다 부처라는 것도 말이 된다.

그러나 선종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모든 중생이 더도 덜도 없이 이미 다 부처라고 선언한다. 어리석음을 쓸어내야만 부처가 된다고 보는 것이, 즉 불성을 부처가 될 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순조로운데, 어째서 어리석음이라는 요소는 무시해버리는 것일까? 다음 회에서는 위에 잠깐 언급한 불이법문, 또한 본가(本體)이라는 개념과 연관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한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2003년도 2학기(10기생) 중무행정 고위자 과정생 모집. 1. 수업시간: 불기 2547년(2003년) 9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2.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 5시까지 (3시간 30분). 3. 모집인원: 30명. 4. 수 강 료: 40만원(입금계좌: 국민은행 016-24-0629-134 이우범). 5. 접수기간: 9월 8일까지 \* 전화접수 가능. 6. 문 의 처: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하차 마을버스 5분 간격 정문도착) 교학과 전화: 02-760-4401. 4003 / FAX: 02-760-4002. \* 2년 전과정 수료생에게는 한성대학교 총장, 1학기 과정 수료생에게는 사회교육원 원장 명의의 중무행정 고위자 과정 수료증을 드립니다. - 중무행정 고위자 과정 개설과목 -

현정 스님의 우리말 염불참선 그리움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 3,692글자 + 선근인연가 824글자 + 부모은중가 996글자 + 불전참회가 623글자 + 회향산화가 752글자를 모두 합해 6,887글자로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분당 125글자를 염불했습니다. 55분 동안 장엄하고 아름다운 염불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한권의 책 6,887글자는 모두 염불테이프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움의 노래는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법문! 이와 같이 신명나는 염불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이 법을 전하세요!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 ● 앞면: 그리움의 노래 -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처의 세계가 어떤곳인가를 알게하고 염불참선의 진미를 들려줍니다. ● 뒷면: (1)선근인연가 - 민족과 국가의 인연에서부터 고향. 이웃 가족의 인연이 맺어지기까지 인연의 고리를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2)부모은중가 - 부모!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식이면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절절한 은혜의 노래. (3)불전참회가 - 참회,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노래합니다. (4)회향산화가 - 참아라! 참아라! 그리고 또 참아라! 부처님은 왜 우리들에게 그토록 인욕을 당부하셨을까요? 들어보면 알게됩니다. ● 책+테이프 = 5천원 / 입금은라인 : 우체국 501023-01-000379(금산정사) ※ 단체주문환영. 법보시 하실 분은 주소 알려주시면 직접 우송 신청전화 (061)843-8822 금산정사